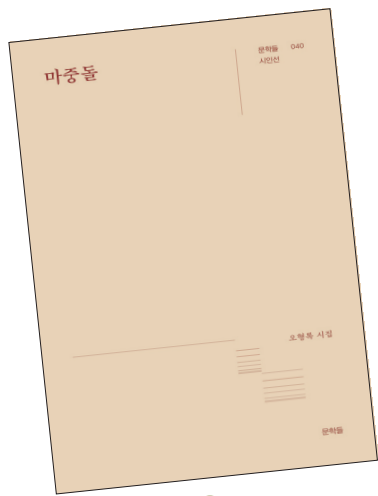


농촌 정서 마중물 삼은 농부시인의 서정시편

해남서 창작활동 오형록 시집 ‘마중물’ 출간

“대자연 속 농촌 무대 삼아 농사 시로 형상화”



농사 대신 시를 지었다. 비농사철을 이용해 쌀 대신 시집을 출간했다.

전남 해남에 머물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쳐온 농부시인 오형록씨가 농촌 정서를 바탕으로 해 펴낸 시집 ‘마중물’(문학들刊)이 그것으로 문학들 시인선 40번째 권으로 나왔다.

이번 시집은 깊은 샘물을 마중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물인 마중물의 의미를 상기했듯 시집에 수록된 시편들이 자신의 문학 인생에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시인은 그 마중물에 빗대어 ‘마중물’을 권두시로 썼다. 눈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 화물차에 등을 실은 체함을 시로 쓴 것

이다.

시인은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은/좁지 못한 돌 몇 개 트럭 집간에 싣는다//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오이 접목을 해야 한다//지긋이 가슴을 붙여 빙판길을 지난 때/위험을 마중하며 또 하루를 열어가느/바닷물//아직 아무도 지나지 않은 신비로운 하얀 길에/선명한 바퀴 자국을 남기며 앞으로 나아가는//마중물’(‘마중물’ 전문)이라고 노래한다.

살다 보면 때로 일련의 고통이나 과제가 삶의 의지와 모임을 복돋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듯, 시인 역시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집에 내려와 흙과 땀으로 점철된 농부가 돼 농사의 마



의미를 부각시킨다.

그는 서울에서 표구 기술자로 일하다가 결혼한 뒤 얼마 안 돼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귀농했다. 1990년 2월이었다. 당시 시골로 돌아온 시인은 ‘비지팡이를 쏘으며 부농의 꿈에 찾아/함뉘 웃어도 보며’(‘고향으로 돌아오다’)라고 노래한데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슬한 시행착오와 난관이 예견된 수순이었기에 실망보다는 웃으면서 일상을 살아냈다.

또 시인은 ‘7만 원 한 뼘 토끼털 값이/폭락하더니/사료 값 이하로 내려가버린 날/

중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집은 스스로에게 바치는 권봉가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요소 요소에서 실천공행하는마중물의

하늘이 무너져도/그보다 아프지는 않았으리’(‘양고라토끼’)라거나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입술을 깨물며/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존재에 대하여’)고 읊는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속 틈틈이 창작한 시편 50여편이 수록됐다.

김규성 시인(전남 담양 ‘글을 낚는 집’대표)은 이번 시집을 해설에서 오형록의 시를 “농사를 천직으로 생활화한 서정적 리얼리즘의 진수”라고 평했다.

김 시인은 “일상과 초현실세계는 시적 배경과 주제의 두 축이다.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언어를 매개로 다채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간사회에서, 일상은 인간을 비롯한 주변 사물과의 관계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무수의 문제점과 과제를 안겨준다. 이는 시인에게도 불가피한 시적 과제로 주어진다. 대자연 속 농촌을 무대 삼아 농사를

천직으로 생활화한 서정적 리얼리즘의 진수”라면서 “도시 중심의 언어와 감각이 지배하는 시류 속에서도 지구의 허파 노릇을 하는 아마존 숲처럼 이런 시인이 버티고 있기에 서정시의 물결은 도도히 흘러바다

가 썩지 않게 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형록 시인은 1962년 해남 출생으로 2014년 계간 ‘열린시학’으로 등단, 시집 ‘붉은 심장의 웅아리’, ‘오늘밤엔 달도 없습니다’, ‘꼭지 따던 날’, ‘희아리를 도려내듯이’, ‘빛 하나가 내게로 왔다’ 등을 펴냈다. 2013년 ‘시아문학’을 발간하며 비영리법인 ‘시아문학’ 회장을 역임했다. 평화주제문학작품상과 시사문단문학상(본상) 등 다수 문학상을 수상했다.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창작지원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문인협회와 전남문화회, 해남문화회, 목포문인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아르플래닛×이이남 콜라보 융복합 피아노콘서트

지역 청년 예술인과 미디어아티스트가 함께하는 특별한 융복합 공연이 펼쳐진다.

‘빛의 울림 - 이이남×융복합 피아노콘서트’가 17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남대 대학원 G-ROOT(지역사회 연계 혁신연구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과 공연기획자이자 아르플래닛(ARPLANET) 대표인 최해지가 공동 기획한다. 낭만주의 주요 피아노 레퍼토리에 미디어아트 영상을 결합해 감각적 무대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주제로 한 융복합 프로젝트다.

‘빛의 울림’ 17일 전남대 민주마루서 공연
낭만주의 레퍼토리 미디어아트 결합 선택

기획을 총괄한 최해지는 전남대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청년예술인의 상설 무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술단체 ‘아르플래닛’을 창단해 14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연출해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사업 선정부터 협업 조율, 홍보·브랜딩, 무대 연출, 연주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한 다.

협업 아티스트로 참여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은 전통 회화와 영화를 디지

털로 재해석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프로그램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그는 지역 청년예술인이 스스로 무대를 만드는 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협업에 함께했다.

공연 해설은 전남대 음악학과 박은식 교수가 맡아 작품의 역사·구성과 음악적 해석을 제공한다. 무대에서는 전남대 대학원 재학생 김수진(소프라노 ‘발라드 3번’), 최해지(브람스 ‘6개의 소품’ Op

.118), 이서영(슈만 ‘환상소곡집’ Op. 12)이 오픈한다. 이들의 연주와 함께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돼 음악·빛·색채가 어우러진 융복합 퍼포먼스를 완성한다.

최해지 대표는 “광주에는 청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며 “그래서 직접 무대를 만들고, 이 과정을 연구와 정책으로 연결하고 싶었다. 이번 시도가 지역 청년예술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네이비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 후 관람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제63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시상식’에서 김정준 연극문화공동체 DIC 대표가 베스트 단체작품상을 받고 있다.

한국연극협회 주최 ‘제63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서

연극문화공동체 DIC ‘그대는 봄’ 작품상 수상

광주지역 연극 단체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그대는 봄’이 ‘대한민국연극인축제’에서 베스트 단체작품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제63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시상식’이 지난 15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그대는 봄’이 베스트 단체작품상을 받았다.

2024년 11월1일부터 2025년 10월31일까지 공연된 순수 창작극 또는 번역극 중 상업극을 제외한 작품을 대상으로, 창의성, 완성도, 예술미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쳤다.

‘그대는 봄’은 한 마을에서 오래 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 할머니의 삶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웅다웅 싸우는 장계네와 명길네. 이 둘을

말리는 민관이네가 등장한다. 민관이네가 치매에 걸리면서 항상 평화로울 줄 알았던 이들에게 난관이 돌아오는 이야기다. 치매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질 듯한 순간, 경쾌한 트로트와 신나는 댄스가 무대를 채우며 다시 한 번 환한 웃음을 이끌어낸다.

임흥석 연출은 “최후우물 세 할머니의 신나는 인생 이야기로 작품명처럼 그대들이 봄이자 봄은 또 온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장준 대표는 “연극문화공동체 DIC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왔다. 앞으로도 업계 선배들과 시민들을 위한 작품을 많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 예술 생태계 선순환 ‘문예창작 성과’ 한 눈에

‘ART is + 있다’ 17~2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서 진행

전남문화재단(대표 김은영)은 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C·A동 일원에서 ‘2025 전남 문예창작 성과공유회 ‘ART is + 있다’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팀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예창작 관련 전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다. 전남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인 창작기반 마련과 창작활동 지원, 홍보·유통, 가치 확장·확산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성과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ART is + 있다’는 예술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과 지역을 이으며, 창작의 순간들을 더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전남문화재단은 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C·A동 일원에서 ‘2025 전남 문예창작 성과공유회 ‘ART is + 있다’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성과공유회 모습.

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예술은 여기 있다(ART is)’는 선언을 통해, 전남 곳곳에서 이어져 온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공유와 공감의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오프닝과 네트워킹 행사, 성과

공유·평가 워크숍, 성과전시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성과전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갤러리 카멜리아와 동백스튜디오에서 마련된다.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전시, 청년문화기획

자 프로젝트 성과전시, 문예창작 사업 성과전시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남도에 숲은행 20주년 기획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전남 미술 유통과 아카이브 성과를 함께 조명한다.

17일과 18일은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평가 워크숍 및 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과 성과발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잇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오프닝 행사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수세계박람회장 에베루 연회장에서 열린다. 한 해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 문예창작 성과를 상징적으로 ‘잇는’ 참여형 퍼포먼스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www.jn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280-5824, 5828.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I 기술 입은 ‘전통 국악’ 만나볼까

광주MBC ‘K-WAVE, 첨단을 만나다’ 20일 방송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광주MBC AI 특집 ‘우리리가 우리문화, K-WAVE, 첨단을 만나다’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80분간 방송된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국악 콘텐츠 제작에 AI 기술을 전 과정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주관한 AI실증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번 특집은 동체 추적기술 기반의 버티고 AI를 활용한 촬영, 편집의 혁신과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한 16K 초고해상도 LED 미디어월 무대 혁신 등 두 가지 기술 융합을 통한 신개념 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버티고 AI는 단일 8K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자동 멀티캠 구성, 인물 추적, 앵글 생성 및 편집 등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여러 앵글을 추출해 멀티캠 화면을 구성했다.

또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초고해상도 LED 무대 배경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험콘텐츠랩 내 VX스튜디오에서 폭 30m, 높이 6m에 이르는 대형 LED 월에 맞춘 영상 콘텐츠를 생성형 AI로 제작했다. 이번엔 사용된 영상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영상 작품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해 8K~16K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재탄생시켰다.

광주MBC 관계자는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AI 기술로 제작 효율성과 콘텐츠 확장성을 확보하는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AI 기반 자동 멀티캠과 쇼츠 생성 방식은 국악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을 촉진하며, 초고해상도 LED 무대 연출은 몰입도 높은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